

추모논문

한국의 사회조사: 과거와 현재*

Social Survey in Korea: Past and Present

홍두승^{a)} · 성지영^{b)}

Doo-Seung Hong · Jee Young Seong

이 글에서는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조사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사회조사는 크게 보아 언론매체가 중심이 된 여론조사, 기업의 활동과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조사, 그리고 실증적 학술연구를 위한 사회조사 등 세 갈래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는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도 실시된 기록이 보이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조사를 수행하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 글은 특히 선거여론조사,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실증연구, 조사방법론 교육의 발전과정, 조사업계의 출범 및 외연확장, 사회조사 관련 학회, 협회 및 연구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끝으로 표본의 대표성 확보, 응답자에 대한 접근성, 응답률 제고,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문제 등 점차 어려워지는 조사환경 하에서 조사연구 분야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 사회조사, 여론조사, 패널조사, 조사연구윤리

* 이 논문은 2017년 6월 2일에 개최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회 특별세션 <박무익과 한국의 사회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a)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b)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성지영.

E-mail: sjylyk@jbnu.ac.kr.

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 of social survey carried out by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Korea over the past 70 years. Social survey has been dealt in three ways; public opinion polls by the media, market research by business firms and empirical social research by academics. Although polls were attempted in Korea in the late 1940s, it was not until the early 1960s to implement social survey more systematically. This paper focuses on election polls, empirical research in social sciences, education and training for survey research methods, launching of survey companies and the activities of research institutes and associations for survey research. Finally, the paper presents the issues and problems we have to face and solve in the future, such as secur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enhancing accessibility to the respondents, raising response rate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Key words: social survey, public opinion poll, panel survey, survey research ethics

I. 서론

이 글은 1945년 해방 이후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조사(social survey)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회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학술연구, 시장조사(market research), 여론조사(public opinion poll) 등 크게 세 갈래로 발전되어 왔다. 물론 이들 간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시장조사나 여론조사의 결과는 학술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학술연구는 실무적으로 시장조사나 여론조사에 학술적 토대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방법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반으로 알려져 있다. 1880년에는 마르크스(Karl Marx)가 노동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25,000명의 프랑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또한 베버(Max Weber)도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탐구하기 위해 공장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조사연구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Babbie 1982: 136-137; 홍두승 2001: 42-43). 기록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여론조사는 1824년 미국의 한 도시에서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사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사회조사는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시작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대통령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Literary Digest는 1916년에서 1936년까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예측조사를 수행하여 선거결과 예측에 성공적이었으나, 불행하게도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예측조사에서는 방대한 표본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산출해 내면서 사회조사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반면에 Roper, Gallup 그리고 Crossley는 보다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Roosevelt의 승리를 예측했다.¹⁾ 그 후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보편적

1) Elmo Roper(1900-1971)는 1933년에 Cherington, Roper and Wood라는 마케팅조사회사(1938년까지 존속)를 동업으로 설립하였다. 1936년 Roosevelt가 압도적인 표차로 Landon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과학적 여론조사가 성공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1947년에는 Roper Center for Public Opinion Research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최초의 사회과학자료 아카이브로 1930년 이후 지금까지 조사된 여론조사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George Gallup(1901-1984)은 1935년에 American Institute of Public Opinion(지금의 Gallup)을 설립하였다. 여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 특수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으로부터는 여론조사를 수주하거나 지원받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그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Gallup 역시 1936년 미국 대선에서 Literary Digest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Roosevelt가 Landon을 이길 것이라고 예측함으로써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Gallup은 현재 전 세계에 30개 지부와 2,000여 명의 조사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60개국 이상에서 여론조사(Gallup World Poll)를 실시하고 있다. Gallup보다 조금 앞서 심리학자이면서 마케팅조사 및 소비자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Daniel Starch(1883~1979)는 미국 Harvard University 교수로 재직하던 1923년에 Daniel Starch and Staff라는 마케팅 조사회사를 설립하고 은퇴 시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다. Archibald Crossley

수단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조사방법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950대 중반 이후다.

II. 초기의 사회조사

1. 언론에서의 여론조사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 된 지 8개월 후인 1946년 4월에 여론조사가 실시된 기록이 보인다. 당시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46년 4월 10일자).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6년 8월에 한국여론협회는 서울의 종로, 서대문, 충무로 입구 등 3곳에서 통행인 1,960여 명을 대상으로 좌우합작원칙, 위조지폐사건공판 소동, 여씨(여운형) 피습사건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동아일보 1946년 8월 6일자).²⁾ 한국여론협회는 1946년 7월에 결성되어 1948년까지 활동하면서 여러 여론조사를 수행하였으나, 1948년에는 미군정 공보부가 공정성을 결여한 가두 여론조사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³⁾ 경향신문은 1950년 2월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민 677명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표본추출도 과학적 방법이 아닌 편의표집방법에 의한 것이었고, 질문도 2개뿐이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책임제는 어느 편이 좋은가”였고, 두 번째 질문은 “개헌이 필요하다면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였

(1896~1985)는 한때 Literary Digest에서 연구책임자로 일하였으나 1936년 대선 당시에는 Hearst Publications에 고용되어 선거조사를 담당하였다. 1954년에는 Crossley Surveys라는 마케팅 및 여론조사회사를 설립하여 활동하였다.

2) <좌우합작원칙>에 대한 응답결과는 ‘우익의 8대 원칙 절대지지’가 49%, ‘좌익의 5대 원칙은 파괴수단’이 24%, ‘좌익의 5대 원칙 절대지지’가 9%, ‘서로 양보하라’가 3%, 그리고 나머지 14%는 무응답이었다.

3) 한국여론협회의 주요 참여자 중에는 장덕수, 조소앙, 김준연, 한경직, 양주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동아일보 1946년 7월 8일자).

다(경향신문 1950년 2월 11일자).⁴⁾

1960년대 초에 정부 및 몇몇 신문사에서 당시의 현안들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도 실시되었다. 국무원(지금의 국무회의) 사무국은 1960년 11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8개 대학에 의뢰하여 전국 51개 지역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0%의 응답률을 보였다(동아일보 1960년 12월 29일자). 질문지는 모두 52개로 구조화된 질문이었으며, 일본과의 국교, 통일방안, 지지정당, 생활상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공보부는 1961년 6월 5.16군사쿠데타 직후 서울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수는 1,500명이었으며, 남녀 대학생이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질문지는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군부내각, 의회제도, 군인정치, 농어촌고리채 정리, 부정축재자 처리, 가장 시급한 정부정책 등 당시의 현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동아일보 1961년 6월 1일자). 1961년 경향신문은 5월과 7월 2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의 주제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금지된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쟁점에 관한 것이었다. 1963년 8월에는 신문구독자를 대상으로 그 해 10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정의 선호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독자는 개별적으로 접촉하였으나 이 중 26%만이 조사에 응하였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무작위 표본추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963년에 예정된 민정이양에 관해 1962년 12월 한국사회통계센터와 함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별 응답자는 동사무소(현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를 사용하여 계통 및 무작위 표집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총 1,500명의 표본 중 85.4%가 응답하였다(동아일보 1963년 1월 1일자).

2. 사회조사방법을 활용한 학술연구

사회과학연구에서 학술연구를 위해 수행된 사회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

4)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대통령 책임제가 58%, 내각책임제가 42%였으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 의원 임기 내가 33%인 반면 차기를 선호한 사람이 67%에 달했다(무응답 제외). 조사결과에서 청년층은 개헌을 찬성하였고, 중·장년층 이상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쪽을 선호하였다.

리나라에서는 사회학이 선구적이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경(東京)제국대학(현 도쿄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있던 이만갑(1921-2010)이 1949년에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 12명을 동원하여 서울의 종로와 충무로의 상가를 대상으로 간단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이만갑 1979, 2007).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사회과학 학술분야에서 시도된 최초의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조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조사원과 조사대상자 간에 때로는 다툼이 있었고, 치안당국 역시 조사에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⁵⁾ 이만갑(2007: 6)의 회고를 소개해 본다.

“...당시 종로의 상가는 남쪽사람들이 운영했고 충무로 일대의 상가는 본래 일본인이 장악했던 곳인데, 해방 후 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A-4용지 4분의 1 정도 크기의 간단한 조사표를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청취조사하게 한 것이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회조사방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도 모르면서 실시한 것이지만, 나로서는 최초의 조사였기 때문에 그때 써놓은 조사보고서 초안을 여러 해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1979년 「사회학연구」 제3집에 ”종로·충무로 점포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이만갑은 우리나라 사회조사분야의 선구자다. 1958년 12월에는 사회과학연구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광주군과 용인군의 6개 농촌에서 체계적인 질문지를 사용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한국농촌의 사회구조」(1960),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1973) 등 학술서적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한국농촌의 사회구조」는 우리나라에서 조사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한 최초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개인 연구자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회조사를 통해 연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즈음 1959년에 아시아재단의 연구비 지

5) “...상인들은 [조사원들을] 세금사정인의 이면조사나 그렇지 않으면 기부나 강요하려는 사람인줄 알고, 덮어놓고 대답을 거절하거나 혹은 주인부채를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며 함구불언하는 사람이 많았다. [조사원] 학생은 상인들과 언쟁 끝에 결국 조사 자체를 포기하여 다른 학생이 교체하였다... 조사인들은 경관에게 불심검문을 받아 신분증명서와 조사를 시켰다는 학장의 증명서를 제시하여도 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署)에 수시간 인치된 일도 수삼차 있어서 펍 불편을 느꼈다...”(이만갑 1979: 1-2).

원이 있어 이화여대 사회학과 고향경(1909~2000) 교수 외 3인(1963)이 충남 천안군, 경북 군위군, 전남 담양군 등 3개 농촌지역에서 농촌가족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표본 수는 843가구로 각 세대에서 남녀 응답자 한 쌍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별다른 통계적 검증 없이 대부분 단순 교차분류표로 제시되었으며, 초보적인 분석이나마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대학에는 없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통계계가 가지고 있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현지 조사는 연구자로 참여한 고향경, 이만갑, 이효재(1924~), 이해영(1925~1979) 교수의 지도 아래 서울대와 이화여대 사회학과 학생들이 면접을 담당하였다. 연구결과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태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 지난 반 세기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를 극명하게 파악해 볼 수 있다.⁶⁾

1960~70년대 대다수의 사회조사는 사회과학 전공 교수들의 개인연구 또는 용역연구를 위해 이루어졌다. 현지조사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던 시절이라 대부분 사회과학 전공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및 인접 학과에는 사회조사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과목이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현지조사에 많이 참여하였다. 예컨대, 이화여대 사회학과와 이효재, 이동원 교수는 1971년에 서울 및 인천의 빈민지역에 거주하는 이농민을 대상으로 “도시빈민 가족문제 및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농촌거주 때보다 생활형편이 못하다는 응답자가 37%인 반면, 향상되었다는 응답한 사람은 20%에 불과해 이농민들이 도시에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경향신문 1972년 4월 12일자). 또한 고려대 사회조사연구소(연구책임: 홍승직(1929~2014)교수)는 1967년에 대학교수 761명과 언론인 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인들의 직업관을 조사하여, 이들이 아들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으로 첫째가 적성에 맞는 직업(63%), 둘째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17%), 셋째가 안정된 미래를 내다보는 직업

6) “자녀분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남자 응답자에게 질문했을 때, 아들의 경우, “부모가 정해놓고 본인의 의사를 듣는다”가 60.8%, “부모의 마음대로 정한다”가 20.2%인 반면에 본인이 정하도록 하는 데에는 15.8%만이 선택하였다. 딸의 경우에는 부모가 정하는 것이 각각 63.8%, 25.6%로 아들보다 훨씬 높았고, 자녀 본인이 정하게 하는 것은 7.3%에 불과하였다(고향경 외 1963: 94-97).

(12%)임을 밝혔다. 반면에 보수가 많은 직업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1962년에는 서울대와 이화여대 사회사업과 학생 30명이 서울시내 버스 차장(안내양) 21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근무실태와 요망사항 등을 알아보고자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버스 차장의 대부분이 10대 여성이었고, 이들 중 75%가 하루 18시간 이상 노동으로 시달리고 있었음을 보고하였다(동아일보 1962년 11월 8일자). 이 시기에는 지금과는 다른 이유로 현지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동회(현 주민센터)나 동장의 협조가 있을 때 조사는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호응도는 지역에 따라 달라 나타났다. 즉 지역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협조도가 높았다고 한다. 빈촌지역 주민들은 의아심이 많고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상류지역'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연구취지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협조도 잘 되었다는 것이다(노창섭 1963; 1964).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는 '사회조사의 시대'라 부를 정도로 보다 체계적인 사회조사가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인수 2015: 24).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담을 수 있는 전문학술지도 이 시기에 등장한다. 1964년에는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들을 중심으로 「사회학논총」이, 이어서 사회조사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사회학회의 공식학술지로 「한국사회학」이 처음 발간되었다. 이들 학술지에 사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논문들이 게재되기 시작하였다(고영복 1964; 김경동 1964; 김영모 1965, 김일철·정홍진 1964; 정철수 1967). 예컨대, 고영복(1964)은 미국 하버드옌칭학회(Harvard-Yenching Institute)의 연구비 지원으로 농촌인과 도시인의 사회적 태도 비교연구를 위해 서울시 5개 지역에서 45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태도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응답지는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긍정에는 +1점, 부정에는 -1점, 무응답은 0점으로 하여 척도를 구성하였고, 통계적 방법으로 상관분석(피어슨의 상관계수), 카이제곱 검증, 교차분류표 등을 사용하였다. 김경동(1964) 역시 하버드옌칭학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경동의 연구는 특히 가치관 척도구성을 위한 문항검사를 위해 예비조사와 2회에 걸친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뢰도분석을 위해 기우반분법(split-half (odd-even) reliability)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1960년대에는 전산화가 되기 이전이어서 수집 자료를 코딩하고 분석하는 일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기법도 단순한 빈도집계(백분률 포함)나 교차분류표 제시 등이 대부분이었다. 상관계수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사회조사 자료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SPSS와 SAS는 1960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개발되어 출시되었다.⁷⁾ 개인용 노트북이 보급되기 시작하기 이전인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자료는 10개 행에 80개 열의 크기를 가진 천공카드(punched card)를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또한 SPSS프로그램도 초기에 국내에는 한국과학기술원(KIST)에만 도입되어 있어서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천공카드를 가지고 KIST에 가서 전산분석을 의뢰해야 했었다. 박무익(2017: 51)은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1979년 우리나라에는 컴퓨터가 흔치 않았다. 조사 완료된 질문지의 응답 내용을 편칭한 카드 몇 박스를 들고 홍릉에 있는 KIST에 갔다. 도착해서 밤새워 카드를 입력하고, 근처에서 오전 만나절을 기다린 후에나 엄청난 부피의 산출물을 받을 수 있었다...”

3. ‘조사방법론’ 교육

조사방법론 강의와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50년사」에 따르면 1947년에 ‘사회조사’라는 명칭의 강좌가 학사과정에 처음 개설되었다(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996). 이 강의는 당시 학과의 양희수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주로 농촌조사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원에는 1948년에 ‘사회실태조사’, 1950년에는 ‘농촌 사회실태조사’라는 강좌가 개설된 바 있다. 1956년에 이르면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사회조사방법론” 강의를 개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만갑 교수는 미국 Cornell University에서 연구년을 마친 후 귀국하여 이

7) SPSS는 개발자인 University of Chicago의 Norman Nie(1943-2015)교수가 Stanford University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당시 자료분석을 위해 통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발하였으며, 소프트웨어는 1968년에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제공되었다. SAS도 비슷한 시기에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에서 개발되었으나 최초 출시된 해는 1976년이다.

과목을 강의하였다. 이만갑(2007)의 회고에 따르면 이 대학 체류 기간 중 조사연구방법론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국내에서 발간된 사회조사방법론 교과서로는 「사회조사방법론」(이만갑 1963)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이만갑 교수가 Goode & Hatt(1952)를 토대로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 펴낸 것이다.⁸⁾ 이 책은 1959년에 이미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해동 교수가 「사회조사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하였다. 김해동(1961; 1962)은 1960대 초반에 조사방법론에 관한 교재를 선보이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도 꾸준히 교재를 펴내어 행정학 연구방법론에서는 선구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1950대 중반에는 교육학자인 정범모(1955)가 사회과학분야에서의 통계방법론 교재를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은 아직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조사통계방법론 워크숍이 1967년 7~8월 약 한 달간 수원의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합숙하며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은 아시아재단과 농업발전협회(록펠러재단 출연금으로 운영)의 후원으로 한국사회학회와 한국농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총 24명이 참가하였는데 대부분 현직 교수들이었으며, 미국에서 초빙된 여러 교수들도 강사로 참여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조사설계와 표본추출, 척도 구성, 질문지 구성과 자료의 처리, 통계분석을 포함하여 사회조사기법과 통계방법 등 광범위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워크숍 종료와 함께 참가자들 각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김인수 2015: 61-66).

Ⅲ. 사회조사의 제도화

1. 조사업계의 출범

최초의 전문 조사회사는 1968년에 등장한다(이흥철 2002). 유일선과 김용한은

8) 이만갑 교수가 수행한 대부분의 사회조사에 참여하였던 김경동, 임희섭, 강신표, 오갑환, 이근무, 한상복, 안계춘이 분담하였으며, 1979년에 발간된 개정증보판에는 김경동, 한완상이 <분석의 기술과 논리>부분을 추가 집필하여 공동 저자가 되었다(이만갑 외 1979).

유한양행 시장조사부로부터 독립하여 유한시장조사기획사를 설립하였지만 2년 경과 후 문을 닫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조사에 대해 기업이나 일반인들의 인식이 별로 없을 때였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서서 김용한 등이 S/K마케팅리서치를, 이기우가 리스피알카운셀링사를 설립하게 되고, 1974년에는 박무익의 한국에스·피(Korea Survey Poll; KSP)가 출범한다. KSP는 창업한 후 그 해 처음 맡아 한 조사가 금성사(후에 LG전자로 명칭 변경)가 의뢰한 “세탁기 광고 효과 측정 조사”였다. 이어서 “가정전기제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이화여대 사회학과 3학년 학생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였다. KSP는 1979년에 Gallup International의 파트너 회사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회사의 명칭도 한국갤럽으로 변경하였다(박무익 2017).⁹⁾ 한국갤럽 설립 후, 국내에서 한국리서치(1978년 설립), 현대리서치(1987년), 코리아리서치(1988년), 리서치앤리서치(1989년), 미디어리서치(1990년, (현)칸타퍼블릭) 등 여러 전문 조사회사들이 설립되었고, 일부는 인수·합병과정을 거쳐 회사의 명칭도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갤럽은 ‘조사업계의 사관학교’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국내 조사회사를 운영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갤럽을 거쳐 갔다(한국갤럽 1999).

1980년대 이후 마케팅조사를 주 사업목표로 하는 외국계 조사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들 간에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에 미국 뉴욕시에 본사를 둔 Nielsen사(AC Nielsen, 1923년 설립)가 한국지사인 닐슨코리아를 설립하였다. 1990년에 출범한 국내기업 미디어리서치는 2005년에 밀워드브라운(Millward Brown)과 통합하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그룹인 WPP(Wire and Plastic Products)의 구성회사인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다시 칸타밀워드브라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8년에 국내에 진출한 TNS(Taylor Nelson Sofres)코리아도 2008년 칸타(Kanter)그룹과 통합되어 칸타TNS가 되었다.

9)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GIA)은 1947년 스위스에서 George Gallup이 설립하였으며, 각 국에서 1개 기관만이 참여하고 있다. 1984년 Gallup이 사망 시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2010년에는 마케팅조사회사인 Worldwide Independent Network of Market Research(WIN)와 합병되어 WIN/GIA가 되었다.

2. 사회조사 관련 기관의 활동

1) 연구소

사회조사와 관련된 연구소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학에 부설된 사회과학계 연구소이다. 둘째는 정부출연 연구소이며, 셋째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 민간 연구소를 들 수 있다.

(1) 대학 부설 연구소

사회조사와 관련하여 이 분야의 최초 대학 부설 연구소로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부설 인구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소는 1964년에 미국 인구협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대학 부설 인구통계실로 출발하였다. 인구통계실은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출산력조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듬해 인구연구소로 정식 학교 연구소가 되었으며, 1968년에는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로, 그리고 1995년에는 사회발전연구소로 개칭되었다(김인수 2015, 2016). 출범 당시는 개발도상국에서 인구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를 때라 가족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유엔 산하 기구나 록펠러재단, 포드재단 등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하여 연구 작업이 이루어질 때였다. 이천조사는 196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이천읍에 거주하는 20~44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였으며, 총 2,024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천조사에 동원된 면접원은 이화여대 사회생활과 학생들과 그 밖에 따로 모집한 기혼여성들이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코딩작업은 조사 당일 이루어졌으며, 이 작업은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들이 담당하였다(김인수 2015: 58). 이천조사의 결과는 1966~1968년에 걸쳐 이해영·김진균(1937~2004), 권태환(1941~)의 공저로 「한국사회학」, 「진단학보」, 「동아문화」 등의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2)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정부의 각 부처 산하에 정책연구 및 제언을 위한 연구소로 출범하였으나 후에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산하로 변경되었다가, 2005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되어 현재는 23개 연구원이 소

속되어 있다. 과거 인문사회연구소에는 9개의 연구소가, 경제연구회에는 14개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었다.

개별 연구소의 성격과 유관 부처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소가 정책개발 등을 위해 사회조사방법을 활용한 자료수집 및 분석작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정부 출연 연구소의 주요 활동 중 패널조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조사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 출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에 대한 패널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표 1> 참조).

(3) 민간 연구소

민간 연구소로는 대다수의 재벌 기업들이 연구소를 두고 있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삼성경제연구소, LG그룹의 LG경제연구원, 현대그룹의 아산정책연구원, 구대우그룹의 대우경제연구소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1968년에 교육학자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적성검사 연구센터로 출발하여 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직원 채용 시 필요한 인·적성검사,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등 교육과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주로 다루어 왔으나, 자녀관이나 남아 선호사상 등 일반적인 국민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회조사도 수행하였다. 또한 1981년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당시 사회정화위원회의 부설로 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그 후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많은 보고서를 창출하였으나, 정치적 변혁기에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05년에 ‘미래한국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 조사관련 학회 및 협회

(1) 한국조사연구학회

1999년 11월, 한국통계학회 조사통계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학, 언론학,

심리학, 행정학, 교육학, 경영학을 포함한 조사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한국조사연구학회를 결성하고, 학제 간 연구와 토의를 통해 조사연구 방법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학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박무익(1943~2017) 소장(회장)의 지원으로 2003년에 ‘한국갤럽학술상’을, 그리고 2004년에는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을 제정하고, 매년 조사방법론을 활용하여 작성한 우수한 학술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을 선정하여 상을 시상하고 있다.

(2) 한국조사협회

학술연구와는 별도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문 조사회사가 등장한다. 그 후 각종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업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현재 약 50여 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에는 조사업계 10개사 대표들이 모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마케팅조사협회(Korean Association of Opinion and Marketing Research: KOSOMAR)를 결성하였고, 2009년에는 한국조사협회(Korea Research Association: KORA)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7년 현재 42개 회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업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판매외형을 보면 사회조사 부문은 시장조사 부문에 비해 크게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사회조사분석사클럽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출범한 해인 1999년에 국가기술자격으로 ‘사회조사분석사’가 도입되었다. 사회조사분석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2급은 2000년, 1급은 2003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었다. 2016년까지 자격시험 합격자 누계를 보면 1급은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가 각각 637명, 250명이었으며, 2급은 각각 39,693명과 22,271명이었다. 현재 시험관리 업무는 통계청으로부터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위임되어 있다. 2000년 10월에는 사회조사분석사 시험 합격자를 중심으로 사회조사분석사 클럽을 결성하였다. 클럽은 회칙 제2조에서 “사회조사분석사에 대한 홍보는 물론, 사회조사분석사들의 재교육, 실무교육, 워크숍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실력과 소양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사업내용에는 리서치 관련 조사방법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IV. 선거여론조사의 발전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탐색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광범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그 결과의 사용과 공개에 대해 정치적, 법적 제약도 따르고 있다. 196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의 NHK방송 서울지사의 선거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평판과 선호 또는 지지정당에 관한 여론조사는 설사 그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 전에는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67년 3월 4일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체계적인 선거여론조사는 1987년 선거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1987년 12월 17일 대선 당일 저녁 6시 한국갤럽은 예측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최종 투표결과에 매우 근접한 예측이었다. 1위 노태우 36.6%(예측치 34.4%), 2위 김영삼 28.0%(28.7%), 3위 김대중 27.1%(28.0%), 4위 김종필 8.4%(8.7%)였다(박무익 2002, 2017). 이를 계기로 1987~1995년 기간 중 한국갤럽은 선거여론조사 수행 및 예측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였다. 그 후 선거여론조사는 크게 확산되었으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광범하게 활용되었다. 1992년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 중 여론조사는 폭넓게 이루어졌지만 후보자 선호에 관한 언론공표는 공식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발표가 금지되었다(박찬욱 외 2002). 1995년에는 위원회가 여론조사결과 언론공표는 선거 60일 전까지 허용하였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BS, MBC,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은 공동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서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월드리서치, 한국갤럽, 코리아리서치 등 5개 조사회사들이 참여하였다. 1997년 12월에 실시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갤럽은 실제 선거결과에 매우 근접한 결과를 예측하였다. 최종 개표 결과는 김대중 40.3%(예측치 39.9%), 이회창 38.7%(38.9%), 이인제 19.2%(19.7%)로 실제 득표율과 예측치의 차이는 0.2~0.5% 포인트에 불과했

다(박무익 2002, 2017). 이 때 정확한 예측으로 인해 선거여론조사의 의미와 유용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박찬욱 외 2002).

선거운동기간 중, 여러 여론조사에서 ‘모르겠다’, 무응답,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결과예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무응답 비율이 서구사회에 비해 3~5배 정도 높은 것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솔직히 밝히는 데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박찬욱 외 2002: 94). 따라서 여론조사기관은 응답자와 비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고, 응답자의 반응을 토대로 비응답자의 경향을 추정해야 한다. 이들 간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응답자의 반응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비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비응답자가 응답하였다면 이들의 선택지는 무엇이었을지를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토대로 추정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아산정책연구원은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기간 중의 여론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동일한 패널표본을 대상으로 7차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다(박찬욱 외 2012). 패널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al Dialing; RDD)방식을 사용하였다. 선거관련 조사는 사전조사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이루어진다. 또한 투표종료 직후 개표 전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출구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선거과정에서 MBC와 한국갤럽은 투표한 10,600명을 대상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투표가 끝난 저녁 6시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가 있는 후 중지하였다. 그 후 출구조사가 허용되었지만 투표소 500m 밖에서만 투표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다. 지상파 3사는 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출구조사를 수행하였다. 허용거리는 당시 300m로 줄어들었고, 2004년에는 100m, 2012년에는 50m로 줄어들었다.

출구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은 제167조와 제241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67조는 투표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것으로 2항에는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 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제241조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한 조문으로 1항에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된 19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하여 선거조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었다. 출구조사와 실제 투표결과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출구조사 결과는 문재인 41.4%(실제 41.1%), 홍준표 23.3%(24.0%), 안철수 21.8%(21.4%), 유승민 7.1%(6.8%), 심상정 5.9%(6.2%)였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총선에 비해 대선에서 예측이 좀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의 경우 제한된 표본 수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지역에서 투표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V. 사회조사의 명암(明暗)

1. 여론조사의 신뢰성

여론조사는 대부분 표본조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집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사회조사나 마케팅조사와는 달리 선거결과 예측조사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잘못된 예측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다. 사회조사사에서 잘못된 예측의 대표적인 사례로 1936년 주간지인 Literary Digest¹⁰⁾가 실시한 미국 대통령선거 예측조사를 많이 들고 있다. 오류가 표본의 대표성과 응답률에 기인한 것이었다. Literary Digest는 1916년 이후 매 대선 때마다 선거결과를 예측하였

10) Literary Digest는 1890년에 Isaac Funk에 의해 창립된 후 Funk & Wagnalls에 의해 운영되다가 1938년에 소멸되었다.

고, 그때마다 적중한 바 있다. 더구나 이전 선거인 1932년 대선 당시에는 Roosevelt의 당선을 1%포인트 차 이내에서 예측하여 신뢰와 명성을 얻었다. 이 잡지사는 1천만 명의 유권자에게 모의투표지를 발송하여 이 중 230만 명이 응답하였다. 공화당 Landon 후보가 민주당 Roosevelt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¹¹⁾ 표본은 주로 자동차등록명부와 전화번호부에서 추출하였다. 그러나 표본이 자동차 및 전화기 소유자에 국한되어 있어서 이를 소유하지 못한 빈곤층이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표본의 크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답률의 차이가 또 다른 오류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인 학력이 높고 부유한 유권자들의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잘못된 선거결과 예측으로 인해 Literary Digest는 결국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1948년 미국 대선에서 Roper, Gallup, Crossley 모두 Dewey에 대한 Truman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여론조사업체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후 예측실패의 원인을 검토하고 표집방법 등을 개선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코미디언이나 정치가들의 조롱에서 벗어나 점차 세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측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총선의 경우, 제한된 표본 수로 당선자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요행에 가깝다. 한 예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선거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한국 갤럽,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월드리서치, 동서리서치 등 5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253개 선거구에서 실사를 담당하였다. 각 조사회사는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선거구별로 1회 600명씩, 선거 1주일 전, 3일 전, 선거 당일 등 3회에 걸쳐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1996년 4월 11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이후 각 방송사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선거구별 오차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당선예상자와 예상의석 수를 확정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예측조사와 실제 투표는 37개 선거구에서 빗나감으로써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는

11) 선거 전 예측은 Landon 55%, Roosevelt 41%였으나, 실제 투표결과는 37%, 61%로 Roosevelt의 승리였다.

결과를 가져왔다(박무익 2017: 164-167).

2. 조사연구윤리

인간을 다루는 모든 학문에 있어 윤리문제는 최근에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윤리문제는 생명과학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사회과학도 예외는 아니다. 응답자에게 응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조사참여를 중용하고, 자발성을 강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의 문구를 조사시작 전에 응답자에게 주지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가 내키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응답을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조사과정의 불명확성과 결과의 과다 일반화는 조사결과를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출범 1년 후인 2000년에 조사윤리강령을 제정한 바 있다. 강령은 여론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조사자와 고객, 표집방법, 조사기간, 표본 수, 자료수집방법(예컨대, 대면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 표집오차, 응답률, 조사항목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조사협회도 1992년 출범과 동시에 협회의 조사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출범 당시에는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였음).

3. 자료의 공유

일반적으로 학술연구나 정책연구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수집한 조사자료가 최초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 분야 조사자료를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1983년에 설립된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은 각종 조사자료를 획득하여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2006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2015년에는 관리주체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되었다. 2016년 1월 현재 조사자료 2,200여 건, 통계자료 1,900여 건, 질적 자료 200여 건 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도 이보다 앞서 1979년에서 1988년까지 자체 조사

한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22개 개별 조사자료가 포함되어 있다(최명 외 1989).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는 2003년 동 대학 사회학과 석현호 교수의 주도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였다(재단의 지원은 2014년까지 12년간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는 조사가 없었음). 2016년도에는 37개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 연구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KGSS조사는 미국 University of Chicago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General Social Survey(GSS)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다.

VI. 미래의 과제

조사환경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응답자를 접촉하여 직접 면접 조사하는 방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 해왔던 개별가구 방문은 아파트 거주인구가 다수인 오늘의 실정에서는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 응답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원들에게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전국적으로 2014년 기준 총 가구의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설사 아파트에 출입이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응답 허락을 받는 일은 더욱 힘들다. 낮 시간에 아파트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통계청에 따르면 4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다.

따라서 우리는 대안적 방법으로 전화조사, 모바일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이와 같은 방법의 혼용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패널을 구성하여 접근성과 응답률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패널구성에 많은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이다.

전화조사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신속히 여론을 조사해야 할 경우 유용하다. 그러나 많은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질문의 수는 최소한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조사회사들은 집전화, 휴대전화, ARS 등 여러 수단을 종합해 사용하고 있다. 한 예로, 이경택 외(2012)는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낮 시간에 주로 집에 있는 응답자는 집전화를 이용한 RDD방식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사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조사패널을 이용한 휴대전화조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화조사는 표집의 토대로 전화번호부를 사용해 왔으나 전화번호부에는 모든 전화가 다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여론조사기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RDD 방식도 겸용하고 있다. 허명희·김영원(2008)은 RDD방식으로 추출한 표본의 반은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전화부 표본과 비교해 볼 때 RDD 표본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더 대표되고 실업자가 덜 대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집전화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가구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집전화를 가질 확률이 낮다. 따라서 집전화를 이용한 조사 방식에서는 1인 가구가 과소 대표된다. 인터넷조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비사용자와 다르다. 모바일조사는 집전화조사나 인터넷조사에 비해 응답자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허명희 외 2004). 각각의 표집방법의 특징을 고려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응답률의 하락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응답률 저하로 인한 자료확보의 어려움은 통계청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가구조사에서 응답자의 20% 이상이 응답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5년 전인 2007년에는 거절률이 17% 정도였다.

VII. 맺음말

지금까지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사회조사의 변화과정을 일별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조사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특히 선거여론조사,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실증연구, 조사방법론 교육 및 조사업계의 발전, 사회조사 관련 기관의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사회조사에서 우리의 관심은 표본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응답자에 대한 접근성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인가, 그리고 응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기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 문제는 개개 시민들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할 분야다.

참고자료

- 고영복. 1964. “도시인의 사회적 태도연구: 한국인의 근대화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 《사회학논총》 1: 59-82.
- 고황경·이만갑·이효재·이해영. 1963.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경동. 1964. “척도구성에 의한 유교가치관의 측정.” 《한국사회학》 1: 3-24.
- 김상욱·김지범·문용갑·신승배. 각 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영모. 1965. “가두노동자의 형성과 이동.” 《사회학논총》 2: 79-91.
- 김인수. 2015.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50년사, 1965~2015》. 한울.
- 김인수. 2016. “농석 이해영의 사회학: ‘한국사회조사사’의 측면에서.” 《한국사회학》 50(4): 27-65.
- 김일철·정홍진. 1964. “농촌사회의 변동과 그 수용과정: 농촌개발의 정지작업을 위하여(조사보고).” 《한국사회학》 1: 58-81.
- 김해동. 1961. 《사회조사방법》. 장문사.
- 김해동. 1962. 《조사방법강의》. 삼중당.
- 노창섭. 1963. “한국 도시지역사회의 연구: 서울 신촌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 학연구원 총서》 1. 이화여대출판부.
- 노창섭. 1964. “서울 주택지역의 연구: 가회동, 재동, 삼청동의 사회학적 조사.” 《이만갑한국연구총서》 22. 한국연구원.

- 박무익. 2002. “선거여론조사의 역사와 의의.” 《조사연구》 3(1): 91-118.
- 박무익. 2017. 《조사인으로 살다》. 박무익 회고록. 한국갤럽.
- 박찬욱·김지윤·우정엽(편). 2012. 《한국유권자의 선택 1: 2012 총선》. 아산정책연구원.
- 박찬욱·김지윤·우정엽(편). 2013. 《한국유권자의 선택 2: 18대 대선》. 아산정책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996.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50년사, 1946~1996》.
- 이경택·이화정·현경보. 2012. “유·무선전화 병행조사에 대한 연구: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사례.” 《조사연구》 13(1): 135-158.
- 이만갑. 1958. “사회조사방법에 대한 그릇된 견해.” 《사회학보》 1: 1-8.
- 이만갑. 1960. 《한국농촌의 사회구조》. 한국연구도서관.
- 이만갑. 1963. 《사회조사방법론》. 민조사.
- 이만갑. 1973.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만갑. 1979. “종로 충무로 점포실태조사.” 《한국사회학연구》 3집: 1-10.
- 이만갑. 2007. “사회학과 더불어 60년 세월.” 《한국사회학회 50년사, 1957~2007》. 도서출판 한학문화. 5-13.
- 이만갑·한완상·김경동. 1979. 《사회조사방법론》(개정증보판). 한국학습교재사.
- 이흥철. 2002. “국내 조사업계의 역사.” 《조사연구》 3(2): 123-153.
- 정범모. 1955. 《교육·심리 통계적 방법》. 범문사.
- 정철수. 1967. “도시인의 정치의식.” 《한국사회학》 3: 30-46.
- 최명·권태환·홍두승(편). 1980. 《사회조사 10년, 1979~198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통계청. 2015. 《한국통계발전사, 위대한 숫자의 역사: 사회통계》.
- 한국갤럽. 1999. 《한국갤럽의 어제와 오늘, 1974~1999》.
- 한국갤럽. 2004. 《한국갤럽의 어제와 오늘, 1974~2004》.
- 한국갤럽. 2014. 《한국갤럽의 어제와 오늘, 1974~2014》.
- 한국노동연구원. 2016. 《한국노동패널 1~18차년도 조사자료: 통합설문지》.
- 한국사회학회. 1990. 《한국사회학 45년》. 학회활동자료집.
- 허명희·강용수·손은진. 2004. “사회조사에서 조사방법에 따른 가중 칸 설정에 관한 연구: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 모바일 조사.” 《조사연구》 5(1): 1-26.
- 허명희·김영원. 2008. “RDD 표본 대 전화번호부 표본: 2007년 대통령 선거 예측

- 사례.” 《조사연구》 9(3): 55-69.
- 홍두승. 2001. 《사회조사분석》 3. 다산출판사.
- Babbie, E.R. 1982. *Social Research for Consumers*. Belmont, CA: Wadsworth.
- Goode, W.J. and P.K. Hatt. 1952. *Methods in Social Research*. New York: McGraw-Hill.
- Squire, P. 1988. “Why the 1936 Literary Digest Poll Failed.” *Public Opinion Quarterly* 52(1): 125-133.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snuac.snu.ac.kr/?u_course=한국사회과학자료원.
- 한국통계진흥원. “사회조사분석사제도.”
<http://sa.stat.or.kr/itd/home.jsp>.
- Gallup. “George Gallup.”
<http://www.gallup.com/corporate/178136/george-gallup.aspx>.
- Roper Center for Public Opinion Research(Cornell University). “Elmo Roper.”
<https://ropercenter.cornell.edu/elmo-roper/>.
- Roper Center for Public Opinion Research(Cornell University). “Archibald Crossley.”
<https://ropercenter.cornell.edu/archibald-crossley/>.
- The Literary Digest.
https://en.wikipedia.org/wiki/The_Literary_Digest.
- Wikipedia. “Opinion poll.”
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

<접수 2017/06/21, 수정 2017/08/04, 게재확정 2017/08/04>

<표 1> 정부 출연 연구소가 수행하는 주요 패널 조사

패널조사	주관기관	조사대상	원 표본수 (1차)	1차 년도	조사주기
한국노동 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도시거주 가구와 15 세 이상 개인	5,000 가구 6,721 가구	1998 2009	1 년 (2009 년에 추가 표집)
청년 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15~29 세 청년	5,956 명 10,206 명	2001 2007	1 년 (2001~2006 년) 1 년 (2007 년 이후 새로운 패널 구축)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학교 2 학년 학생	3,449 명	2003	1 년 (2003~2008 년)
		초등학교 4 학년 학생	2,844 명	2004	
한국이동·청소년 패널조사		전국 초등학교 1 학년, 전국 초등학교 4 학년, 중학교 1 학년 학생	7,071 명	2010	1 년 (2010~2016 년)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각 2,000 명	2004	10 년 이상 추적조사
인적자본기업 패널조사		모든 기업체 및 해당기업 근로자		2005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국민연금연구원	만 50 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50 세 이상 가구원 및 배우자	5,110 가구	2005	2 년 (본 조사 중간연도에 부가조사) 2013 년 50-57 세 연령대 1,201 가구 추가
한국교육 종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중학교 1 학년 학생	6,908 명	2005	1 단계: 1 년(2005~2010) 2 단계: 5 회(2011~2019) 3 단계: 2023(만 30 세)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45 세 이상 중고령자 중 일반가구 거주자	10,000 명	2006	2 년 (썬수연도; 본조사, 홀수연도; 특별조사)
한국복지 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일반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각 3,500	7,072 가구	2006	1 년
여성가족 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 가구 내 19 세 이상 64 세 이하 여성	9,997 명	2007	2 년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 100 인 이상 고용 기업의 여성관리자 및 이들이 속한 기업의 인사담당자	기업 341 개 여성관리자 2,361 명	2007	2 년
한국의료 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가구 및 가구원	8,000 가구	2008	1 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가구 학생 및 학부모	1,625 가구	2013	1 년

출처: 각 기관의 홈페이지 참조.